


시페퍼스 2024-2025 결산

여자프로배구단 페퍼저축은행 시페퍼스의 2024-2025시즌 V리그가 막을 내렸다. 시페퍼스는 창단 네 번째 시즌을 맞아 한골탈태를 약속, 새 사령탑으로 장소연 감독을 영입한 데 이어 새로운 코치진 구성과 베테랑 선수 등을 데려오면서 전반적인 전력 강화에 힘을 쏟았다. 그 결과 구단 역대 최다승과 승점, 창단 첫 전 구단 상대 승리 등 굵직한 기록들을 써내려갔다. 특히 올 시즌 목표로 삼았던 '두 자릿수 승수'를 위해 선수단이 푹푹 뭉치면서 구단 첫 '11승'이라는 새역사 또한 작성했다. 창단 이래 최고의 한 해를 보낸 시페퍼스의 올 시즌에 대해 살펴본다.

두 자릿수 승수 '새역사'...최하위 탈출은 과제

구단 역대 최다승점·전 구단 상대 승리 등 금자탑 리시브 효율 24.19%로 7위...세트 강화 보완점도

△두 자릿수 승수 달성...다양한 신기록 질주
시페퍼스는 올 시즌 역대 최고의 시간을 보냈다. 전반기에만 구단 역대 최다승(6승)과 승점(19점) 기록을 모두 갈아치웠고, 후반기에도 5승을 추가하면서 11승 25패 승점 35로 시즌을 마감했다.

지난 2021-2022시즌 V리그에 합류한 이후 3승(28패·승점 11), 2022-2023시즌 5승(31패·승점 14), 2023-2024시즌 5승(31패·승점 17)에 머물렀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다.

특히 후반기에는 다양한 금자탑을 쌓았다. 1월에 열린 현대건설 배구단과의 도드람 2024-2025 V리그 여자부 4라운드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1(25-21 13-25 25-19 26-24)로 승리하며 창단 후 첫 3연승을 따냈다.

올 시즌 목표로 삼았던 두 자릿수 승수는 5라운드까지만 끝났지만 19일 정관장 배구단과의 도드람 2024-2025 V리그 여자부 5라운드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0(25-21 25-23 25-13)로 승리하면서 구단 역대 최초로 단일 시즌 10승을 기록했다.

이러한 성과는 창단 4년차를 맞아 대대적인 변화를 이룬 전 구단 상대 승리 또한 달성했다. 이는 창단 이후 최초의 기록이다.

이러한 성과는 창단 4년차를 맞아 대대적인 변화를 이룬 전 구단 상대 승리 또한 달성했다. 이는 창단 이후 최초의 기록이다.

해 제4대 사령탑으로 장소연 감독을 영입했다. 이후 베테랑 지도자인 이용희 수석코치를 비롯해 신임 코치 등을 영입하며 새로운 코치진 구성을 마쳤다. 또 흥국생명으로부터 세터 이원정을 데려오고, FA기간에는 11시즌 간 리그 경력과 국가대표 경력 등을 보유한 베테랑 리베로 한다혜를 영입했다. 특히 아시아권 트라이아웃에서는 최장신(196cm) 미들블로커 장 위(29·중국)를 품었다. 외국의 선수로는 바르바로 자비치를 영입했지만, 그의 부상과 부진으로 제때 교체하는 결단까지 보여줬다.

이는 구단 역대 최다(연)승·승점, 창단 첫 전 구단 상대 승리 등 이어졌다. 다만 순위에서는 4년 연속 리그 7위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리시브 한계 노출...공수 연결 강화해야
앞으로 시페퍼스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명확했다. 먼저 창단 이후 가장 약점으로 꼽혔던 리시브 문제를 풀지 못했다. 리시브 리그 7위(시도 2914회·정확 887회·리시브효율 24.19%)를 기록, 배구의 기본이 되는 수비에서 여전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세터와 공격진의 원활한 연결을 평가하는 세트 역시 리그 7위(시도 5110회·성공 1681회·세트당 평균 11.84회)로 가장 낮았다.

장소연 감독은 올 시즌을 돌아보며 "팀적으로 보면 분명 아쉬운 점이 많다. 세터가 불안정한 부분도 있고, 리시브 역시 흔들렸다"며 "그런데 보니 전체적으로 플레이가 단순해지고, 공격로가 쏠려 득점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평가했다.



지난 18일 광주페퍼스타다움(영주체육관)에서 열린 현대건설 배구단과의 도드람 2024-2025 V리그 여자부 6라운드 최종 경기에서 장소연 감독이 직원 타임을 맞아 선수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모습도 분명 있었다. 장 감독은 "승수를 챙기면서 발전했던 모습이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뒷심이 생겼다는 것"이라며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집중하면서 기울었던 경기를 여러 차례 역전해 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칭찬해주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감독으로서 모든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었다. 다만 중간중간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더 단단해졌다"면서 "코칭스태프를 비롯한 선수들이 잘 따라줘서 올해의 결과를 만들어냈다.

순위에는 아쉬움이 있지만, 다음 시즌에는 더 노력하게 대처해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팀 분위기도 고무적인 부분이다.

장 감독은 "박정아 선수가 주장을 맡으면서 그 역할을 잘 소화해냈다. 나름의 고충이 있었을 텐데 불평 없이 잘 따라줬다"며 "감독 부임 이후 처음 영입했던 한다혜 선수 역시 첫 경기부터 마지막 경기까지 개근했을 정도로 열정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배들이 열심히 하고 후배들이 잘 따라줬기에 팀 전체적으로 성장했다. 기술적인 부분

은 다음 시즌 보완해야겠지만 그런 분위기는 좋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팬들에 관한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다.

장 감독은 "프로는 결국 팬이 있어야 한다. 다들 많은 기대를 해주셨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 있을 거다. 저도 느끼는 바가 많다"면서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응원해주신 팬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정말 감사하다. 다음 시즌은 더 발전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고 강조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하나음실내체육관과 이음대체육관에서 '화순군체육회장배 및 화순적벽배 배드민턴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배드민턴 경기 장면.

화순적벽배 배드민턴 축제 열린다

22~23일 전남 22개 시군 동호인 2000여명 참가

배드민턴 저변 확대와 동호인의 건강 증진 등을 위한 배드민턴 축제가 화순에 열린다.

19일 화순군에 따르면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하나음실내체육관과 이음대체육관에서 '화순군체육회장배 및 화순적벽배 배드민턴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화순군체육회가 주최하고 화순군배드민턴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남 22개 시군에서 2000여명의 배드민턴 동호인이 참가한다.

대회 첫날인 22일 오후 3시 이음대체육관에서 개회식이 열릴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많은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실력을 겨루고 우정을 나누는 한마당이 될 것이다"며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경기를 치르며 뜻깊은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은 다양한 스포츠대회를 적극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스포츠 관광 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대회 또한 지역 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대회 첫날인 22일에는 화순 꽃강길 일원에서 '화순 제10경 꽃강길 음악분수 맹한금배 경기 대회'가 진행돼 참가자의 체력 증진과 화합을 도모할 예정이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신진서, 맥심커피배 3연패 도전...변상일과 4강전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입신'(入神·9단의 별칭) 중에서도 최강 프로기사인 신진서가 9단이 맥심커피배에서 3연패에 도전한다.

제26기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이 8강전을 마친 결과 4강 대진이 신진서 9단-변상일 9단, 강동운 9단-이지현 9단으로 짜였다고 19일 한국기원이 밝혔다.

부동의 한국 랭킹 1위인 신진서는 2023년과 2024년 맥심커피배에서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 8강에서 랭킹 2위 박정현 9단을 꺾으며 3연패 달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다만 랭킹 4위 변상일이 최근 신진서를 상대로 2연승을 거둔 터라 24일 열리는 4강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광주FC, 올시즌 홈경기 광주월드컵경기장서 치른다

시, 축구센터 개보수 등 구단 재정 지원 확대

프로축구 광주FC가 2025시즌을 홈경기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치른다.

광주FC는 광주축구전용구장의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홈경기장을 광주월드컵경기장으로 변경한다고 19일 밝혔다.

광주는 한국프로축구연맹 경기장 시설 기준이 변경되며 광주월드컵경기장으로 홈경기장을 이전하는 절차를 추진했다. 광주축구전용구장은 길이 97m, 관중석 7800석(유료 기준)으로 2027년부터는 연맹에서 제시한 'K리그 경기장 시설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K리그 경기장 치르지 못한다. 여기에 매점, 화장실, MD샵 등 편의 시설도 간이로 마련돼있어 팬들의 불편이 이어져 왔다.

이에 광주는 편의 시설이 잘 구축됐을 뿐 아니라 지붕이 설치되어 우천 시비를 피할 수 있고, 응원 열기도 북돋을 수 있는 광주월드컵경기장으로 홈경기장을 변경하기 위해 광주시, 시체육회 등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지난 수원FC전, 안양전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치렀으며 모든 협의가 완료됨에



지난 12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비셀 고베와의 ACLE 16강 2차전 경기에서 승리한 광주FC 선수단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따라 추후 리그 경기 또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사용하던 홈경기장인 광주축구전용구장은 리모델링을 거쳐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방침이다.

먼저 U-15 선수단 생활관 마련 및 프로선수단 실내 훈련장 증축으로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훈련을 진행하도록 추진한다.

또 광주FC 역사 전시관 구축, 대관 사업 추진 등 지역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홈 경기장 변경을 승인한 광주시는 광주FC 경기력 향상을 위해 지난해 축구센터 개보수, ACLE 길거리 응원전 참여 등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구단 관계자는 "광주월드컵경기장으로 홈경기장이 확정됨에 따라 찾아오는 팬분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게끔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다"며 "광주축구전용구장은 다양한 활용 방안을 마련해 시민구단으로서 지역사회에 공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홍명보호 합류 '김천 사총사'...“영광의 자리”

김동현·조현택 첫 태극마크...이동경·박승욱 재발탁

홍명보호 축구 대표팀 감독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7~8차전에 나설 26명의 선수를 뽑으면서 10명의 K리그를 선택했다.

이 중 4명이 김천 상무 소속으로 K리그1 단일팀으로는 최다 인원이다.

'불사조 정신'으로 홍명보호의 소집 훈련에 합류

한 선수는 김동현(골키퍼), 박승욱, 조현택(이상 수비수), 이동경(미드필더)이다.

김동현과 조현택은 생애 첫 태극마크를 다는 기쁨을 맛본 가운데 박승욱과 이동경은 각각 지난해 6월과 9월 이후 재출전했다.

28살의 늦은 나이에 처음 대표팀에 합류한 김동

현은 2019년 K리그1 인천유나이티드에서 프로로 데뷔, 2022년부터 주전 골키퍼를 맡다가 임대하면서 김천의 골문을 두 시즌째 지키고 있다.

홍명보호의 새 얼굴인 조현택(23) 역시 K리그2 부천을 통해 프로에 뛰어들었고, 2023년 울산HD에서 30경기를 소화하며 주전으로 뛰다가 지난해 김천에 합류했다.

'대표팀 새내기'와 달리 국가대표 출전 경험을 가진 박승욱과 이동경은 입을 모아 "다시 뽀짝 영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